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c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나시오)
 1 보좌신부 : 김경영 (영주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 (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김영희 (비앙카)
 박선옥 (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 (올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일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미사 전 30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평 일 미사 전 15분
관면헌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소 식

금주의 성경 암송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1,16)

- ◎ **주임신부님 영명 축일 축하미사**
 - * 7월 31일(월)은 본당 주임신부님이신 김민수 이나시오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영·육간 건강하시도록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우 여러분의 영적예물을 드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2층 로비에 비치된 영적 예물함에 봉헌 횡수 기재 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오늘까지 봉헌접수)

< 영적 예물봉헌 >

- 미사·영성체, 주모경, 화살기도: 각 5회 이상
- 묵주기도 5단, 사제를 위한 기도 5회

- * **축하미사 및 축하식:** 7월 16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미사 후 국수찬치: 성당 1층과 성당 마당)
- ◎ **병자영성체: 7월 13일(목) 10시 미사 후**
- ◎ **필리핀 말로로스시 청년 해외 봉사 후원 물품 접수**
 - * 주임 신부님과 함께하는 청년 해외 봉사에서 현지 어린이들에게 나눠 줄 물품을 접수받습니다.
 - * 접수마감: 7월 9일(오늘)까지 사무실 접수
 - * 물품종류: 아이들 옷(티, 반바지, 속옷 등)과 학용품(연필, 노트, 필기구, 책가방 등)
- ◎ **7월 9일(오늘): 해외 입양아들을 위한 후원 모금**
 - * 사단법인 등지 후원회에서는 해외로 입양된 이들을 위한 지원과 해외원조를 하는 NGO단체입니다. 모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모금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유사종교를 주의 합시다**
 - * 최근 신천지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개인적인 친분을 맺은 후 성경 공부를 하고자 권유합니다. 성당이나 교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공부는 반드시 본당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종교에 관한 피해 사례를 제보하실 곳 jeboqr@seoul.catholic.kr

- ◎ **주일학교 여름행사 안내**
- [중 · 고등부 가톨릭 청소년 캠프(2박 3일)]**
 - * ‘모두 기뻐 뛰어라.(역대기 상 16,32)’ 말씀을 주제로 청소년 여름캠프를 떠납니다.
 - * 일시: 7월 21일(금)~7월 23일(주일) / 참가비 5만원
 -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고사리 수련관 (충북 괴산)
 - * 문의: 정 마리아 (010-9782-7997)
-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캠프 안내]**
 - *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접수: 7월 8일~7월 22일 (사무실 또는 교사회)
 - * **여름신앙학교(6세~9세):** 8월 4일~8월 5일(무박2일) - 참가비: 3만원 / 장소: 청담동 성당
 - * **여름캠프(10세~13세):** 7월 28일~7월 30일(2박3일) - 참가비: 7만원(주일학교 등록: 6만원) - 장소: 화성시 청려 수련원
 - * 문의: 신 루치아노 (010-8701-4750)

- ◎ **제 34차 엠마오 태안 해변 (만리포 파도길 걷기)**
 - * 일시: 7월 15일(토) 오전 6시 40분, 성당 출발
 - * 준비물: 운동화, 간편복, 엠마오스카프, 회비(5만원)
 - * 문의: 전 도미니카 (010-3297-6738)
- ◎ **빈첸시오회 명예회원 및 활동회원 모집**
 - * 불우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 * 문의: 김 토마스아퀴나스 (010-9056-3116)
- ◎ **쌍투스 · 베네딕투스 단원 모집**
 - * 일요일 저녁 7시 미사 청년 성가대와 챔버단을 모집합니다.
 - * 대상: 성가대 -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신자 (40세 이하) 챔버단 - 악기 연주 가능자
 - * 문의: 김 바오로 (성가대, 010-9018-2139) 이 알렉산더 (챔버단, 010-4297-5444)
- ◎ **여름철 미사참례 예절**
 - *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의 모습은 단정해야합니다. 소매 없는 옷, 반바지, 슬리퍼, 속이 비치는 옷 등은 삼가고, 미사 중 부채질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 ◎ **여름철 피서지 성당안내**
 - * 7월 매일 미사책(P.199)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 임

- * 7월 10일(월): 성령 기도회(강사: 박미혜 마태오 수녀)
- * 7월 11일(화): 여성 Cu. / 해외선교 후원회
- * 7월 12일(수): 여성구역장 회의 / 성모회 / 시몬회
- * 7월 14일(금): 남성 Cu.
- * 7월 15일(토): 예비신자 피정

성가번호 입 당: 329 예물준비: 220, 221 성 체: 165, 167, 168 파 견: 15

화 답 송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이름을 찬미하나이다

"같이 가는 길"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과 균형을 맞추는 감정을 표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인생의 깊은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내 멋대로 하느님을 이해하고 복음생활을 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하느님께 말없이 졸라댔다. 헛바닥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말로만 하느님 믿는다고 열심이였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내 삶을 연결하는 센서가 되어달라고 했던 시절에 나에게 도움을 준 형님으로부터 레지오 입단을 권유받았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이 잘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이 방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내 생활이 특별한 변화를 보여 주지는 못해도 일단 신심단체라기에 레지오에 입단했다. 입단하니 우리 뿌레시디움¹⁾ 단원들은 서로 균형을 잘 맞추고 있었다. 사정이 있어 일산에서 오는 70세가 넘는 형님과 50년을 넘게 레지오 활동을 한 형님이 있었다. 지금은 이사하여 우리 성당에는 나오지 않지만, 따뜻하고 풍부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기억은 두고두고 간직하고 싶다. 단원 중 밀양과 대전에 사는 부모님이 선종했을 땐 그곳까지 연도하러 갔었다.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는 우리 팀이 나는 좋다. 어릴 때 내 어머니는 따뜻하지 않았다. 사랑해 주고, 칭찬해주며 안아주고 하는 친구들 어머니에 비해 나의 어머니는 그런 정을 주지 않았다. 말이라서 친구 같은 어머니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에게서 부족했던 훈훈함을 형님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 성모님을 통해 기도하고, 성당 행사에 봉사로 참여하는 가운데 사랑이 오가는 생활에 웃음이 늘었다. 매주 금요일의 레지오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 시간이 은총의 표징으로 내게 담긴다.

레지오를 하지 않았다면, 가슴이 꿰뚫던 중년의 산을 어떻게 넘었을까. 내적 칭얼거림으로 아이 어른으로 멈추었을 것만 같다. 바쁘다는 말은 핑계일 뿐, 게으른 기도 생활에 대한 변명이었을 테니, 하늘나라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은총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이다.

돌이켜 보니, 레지오 활동을 통해 은총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영적 성장에 충분히 보탬이 되었다. 교회의 다른 분야에도 참여하면서 가랑잎에 옷 젖듯이 천주교 신자 냄새가 슬금슬금 스미기 시작했다. 빈 어머니 자리가 성모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자매들과 같이 가는 길에 성모님의 향기와 다소의 안정감을 채워 넣었다. 더 만족스럽고 싶은 욕구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기구해야 될 것 같다. 희망을 둔다는 게 요즈음 나의 행복이다.

<청담수필반, 루르드의 성모 pr. 9구역 11반 박현주 데레사>

♣ 후원단체 계좌 안내

입금자명: (재) 천주교 서울 대교구 유지재단 청담동성당			
성소 후원회	국민 은행	809101-04-166234	성소자 후원 양성
군중 후원회	우리 은행	1005-002-459371	본당 군입대자 선교(선물)
해외선교 후원회	우리 은행	1005-003-133453	해외 어려운 지역 선교
빈첸시오회(관내지원)	국민 은행	809101-04-164029	본당 내 불우이웃 지원
바 보 회(관외지원)	하나 은행	843-910006-15404	본당 외 불우이웃 지원
티모테오 장학회	하나 은행	843-910006-64404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지원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감사 헌금 (6/28 ~ 7/4)			
연중 제 13주일	8,549,800원	총 세대수	3,836세대	곽 다니엘	100,000원	김리한	100,000원
교황주일	7,106,070원	총 납부 세대	1,224세대	김 모니카	100,000원	김리후	100,000원
교무금	25,942,000원	지난주 납부 세대	10세대	정 돈보스코	30,000원	한 프란치스카	150,000원
성소후원금(7건)	145,000원	총 납부율(%)	31.9%	김 소화데레사	50,000원	박 발렌티나	30,000원
				이 모니카	100,000원	윤 세실리아	100,000원
				합 계: 2,860,000원			

1) 레지오 마리아의 조직 중 하나로 가장 작고 기초적인 단위체